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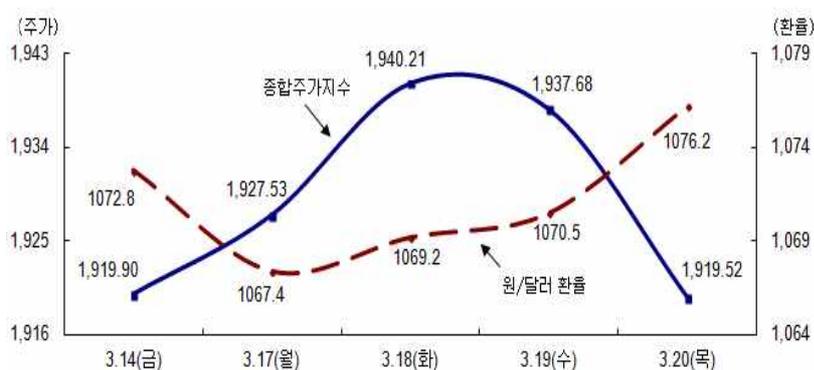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중국경제, 올해 성장목표(7.5%) 달성 어려울 수도 있다!
- 중국경제 리스크요인과 시사점

週間 主要 經濟 指標 (3.14~3.20)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중국경제, 올해 성장목표(7.5%) 달성 어려울 수도 있다!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2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경제연구본부 : 한 재 진 연구위원 (2072-6225, hzz72@hri.co.kr)

천 용 찬 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

Executive Summary

□ 중국경제, 올해 성장목표(7.5%) 달성 어려울 수도 있다!

■ 중국경제 하방 압력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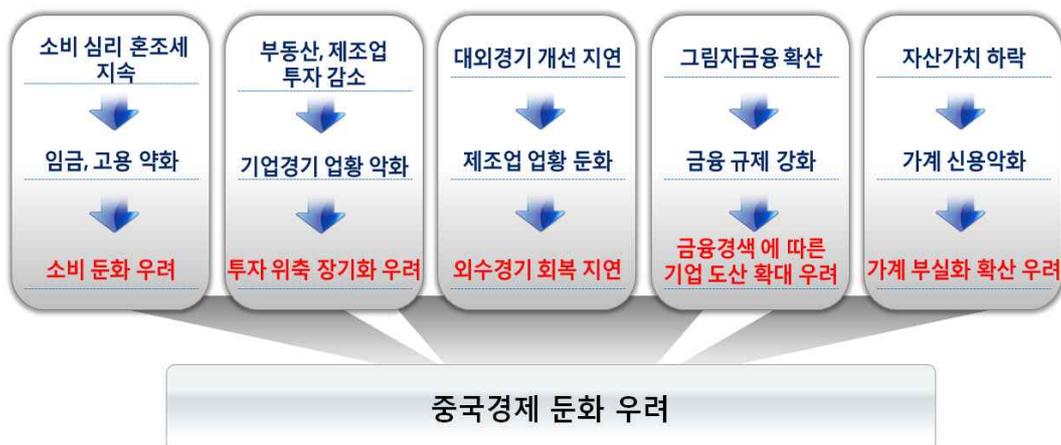
지난 3월 5일 개최된 양회(兩會)에서 중국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5%로 설정 하는 등 구조개혁과 성장의 병행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최근 내·외수 경기의 동반 약화 등 성장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 등 구조개혁 과정에서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성장과 개혁의 병행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 중국경제의 5대 하방 리스크 요인

최근 중국경제는 다음과 같은 하방 리스크 요인이 우려된다. 먼저 실물 부문은 소비, 투자, 수출 등 내·외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첫째**, 고용 및 임금 환경 악화로 소비 둔화가 우려된다. 올해 2월까지 소매판매 증가율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11%대로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소비자 심리도 지속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2013년 4/4분기 현재, 구인수 및 구직자수가 동년 2/4분기보다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 개선이 지연되고 있으며, 1인당 평균임금 증가율도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향후 소비 둔화 지속이 우려된다. **둘째**, 제조업과 부동산 투자 감소 등으로 투자 위축 장기화가 우려된다. 올해 2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7.9%를 기록, 지난 2002년 이후 약 12년 만에 처음으로 17%대로 하락하였다. 특히, 2013년 기준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약 64%를 차지하는 제조업 및 부동산 투자가 최근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투자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기업경기지수도 10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업황 개선도 약화되고 있어 향후 투자 위축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셋째**, 외수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약화되고 있다. 2014년 2월 현재, 최근 IMF('14.1)에서 올해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등 불확실성 확대로 여전히 빠른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제조업 HSBC PMI가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업황 개선도 약화되고 있다. 금융부문도 구조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경색 확대에 따른 부실기업 도산과 부동산 및 증시 하락 등 자산 가치 감소에 따른 가계 부실화 우려도 염려된다. **넷째**, 금융경색 및 기업부실 확대에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2013.10)이 제시한 그림자금융 최소 규모는 2013년 9월 현재, 20조 위안으로 GDP 대비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월 중국인민은행이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가 예상되고 있으나, 중국에서 민간 기업이 많은 위치

윈저우(溫州市)의 경우, 자금용 금리가 약 20%를 넘어서고 있어, 구조개혁 과정에서 유동성 위축에 따른 부실 민간기업 디폴트 확대가 우려된다. 다섯째, 가계 부실화 가능성도 확대가 우려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 증시 하락 등 가계 자산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경색 등 금융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신용악화를 초래해 가계 부실화 확대가 염려된다. 중국지수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100대 도시의 주택 평균가격 상승률이 2014년 들어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상해종합지수도 2014년 3월 20일 현재, 1,683p로 지난 2007년 10월 16일 6,092p에서 약 4,400p 이상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증하는 반면, 미상환 규모도 동반 증가하고 있어 향후 가계 부실화 확대가 우려된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올해 중국경제는 경기 부양 등 경기 활성화 대책 없이는 7.5%보다 낮은 7%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경제의 5대 하방요인 관계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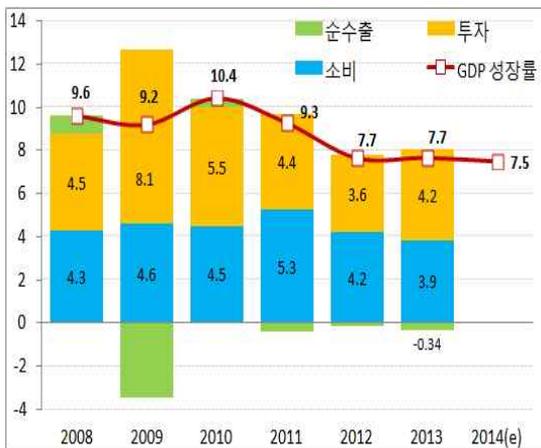
■ 시사점

최근 중국경제의 리스크 확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구조개혁과정에서 중국 경기 급랭에 대비한 상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對中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리스크 최소화화 해외 활로 개척이 시급하다. 둘째, 중국의 금융위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전판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기업들은 중국 정착륙에 대비한 컨틴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자금경색 등 중국경제의 유동성 축소에 대해 중국 현지 국내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책도 사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1. 중국경제 하방 압력 증대

- 최근 중국의 내·외수 경기가 동반 둔화되는 등 중국경제의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올해 7.5%의 성장 목표 달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
 - 지난 3월 5일 개최된 양회(兩會)에서는 중국정부는 2014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에 이어 7.5%로 유지하는 등 지속적 성장 기조 강조
 - 중국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8%의 경제성장 목표치를 2012년부터 7.5%로 하향조정한 후, 2014년까지 3년 연속 유지
 - 하지만, 소비, 투자, 수출 등 내·외수에서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 등 금융 리스크에 대한 구조개혁 과정에서 경기둔화가 우려
 - 실물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는 소비 약화, 투자 위축, 외수경기 약화 등 내·외수 경기 둔화가 우려
 - 한편, 금융부문은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경색 심화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치 하락과 신용 부실에 따른 가계 부실화도 우려됨
 - 이에 따라, 올해 중국정부가 성장과 개혁의 병행을 통해 목표한 7.5% 달성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최근 주요지표의 GDP 기여도 >
(%, %p)



자료 : CEIC.

주 : 2014년 GDP 성장률은 IMF('14.1) 전망치.

< 중국경제의 하방 리스크 예상 >

구분	하방 리스크	
실물 부문	소비	- 고용, 임금 감소
	투자	- 제조업, 부동산 경기 위축
	수출	- 대외경기 회복 지연
금융 부문	금융경색	- 그림자 금융 규제
	기업	- 기업 디폴트 확산
	가계	- 가계자산 부실화 확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 중국경제의 5대 하방 리스크 요인

1) 실물 부문

① 소비 둔화 가속 가능성 우려

○ 소매판매 증가율 하락과 소비심리 혼조세 지속 등 소비 시장 개선이 약화되는 가운데, 고용·임금 등 환경 악화로 향후 소비 둔화 가속 가능성 고조

- 최근 소매판매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 기록

- 내구재 및 비내구재의 소비 증가율은 2013년 중반부터 연말까지는 상승세가 지속
- 하지만, 1~2월 소매판매 증가율(누적기준)은 전년비 11.8%로 지난 2004년 4월 11.3%이후 10년 만에 가장 증가율을 기록

- 소비자 심리 지수 등 선행지수도 혼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조정국면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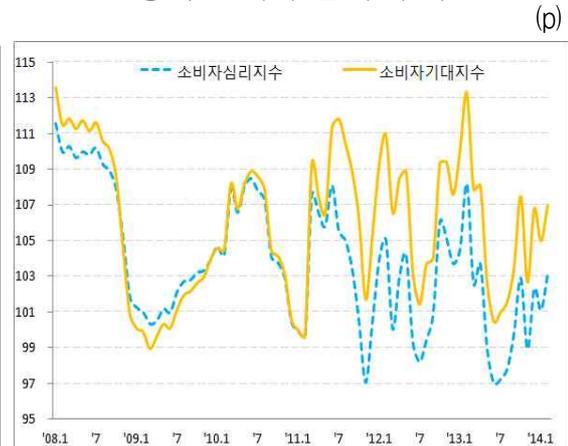
-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3.1p로 2013년 12월 102.3p 이후 3개월 연속 100p를 상회하고 있으나, 2012년 이후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심화
- 또한, 소비자의 기대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도 '14년 2월 현재 107.0p로 지난해 말 106.8p보다 소폭 상승하나 향후 경기흐름에 따라 변화 가능성 상존

< 중국 내구재 및 비내구재 소비 추이 > (%)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주 : '14년 소매판매 증가율은 1-2월 누적치 기준.

< 중국 소비자 심리 추이 >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주 : 소비자심리지수와 기대지수는 100p를 기준으로 상승하면 호조세 예상.

- 더욱이 최근 구인 및 구직 등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1인당 평균소득도 항상 지연 양상 지속되는 등 향후 소비 둔화 지속이 우려
 - 2013년 4/4분기 현재, 구인배율은 1.1배로 높은 편이나, 구인자수 및 구직자수는 동년 2/4분기부터 동반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 악화
 - 2013년 3/4분기 현재, 중국 1인당 평균임금은 12,147위안으로 지난 2008년보다 약 1.3배 증가했으나, 증가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냄
 - 이에 따라, 경기둔화가 지속될 경우, 가계소비 확대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됨



자료 : 中國人力資源社會保障部.

주 : 구인배율은 구인수/구직자수로 수치가 높을수록 고용 호전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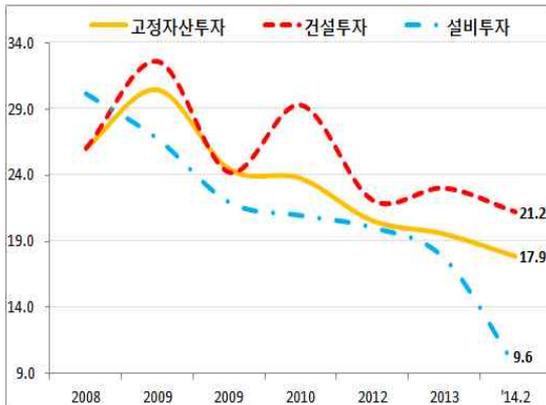
자료 : 中國人力資源社會保障部.

② 투자 위축 장기화 우려 심화

- 최근 부동산 및 제조업 투자 감소로 고정자산투자가 하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경기지수 등 향후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 약화되는 등 투자 위축 장기화 우려 심화
 - 최근 고정자산투자가 약 12년 만에 처음으로 17%대로 하락
 - 2월 현재, 중국 고정자산투자증가율(누적치 기준)은 17.9%로 지난 2002년 12월 17.4% 증가 이후 약 12년 만에 17%대를 기록
 - 건설투자보다는 설비투자가 동기간 9.6% 증가에 그치면서 투자가 위축
 - 기업의 유형별로는 민간 기업의 투자 증가율이 '14년 2월 약 26.6%로 지난해 2월 31.4%보다 크게 하락

< 중국 고정자산투자 추이 >

(%)



자료 : CEIC.

주 : 2014년은 누적치 기준.

< 중국 기업유형별 고정자산투자 추이 >

(%)



- 특히,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약 60%를 차지하는 제조업과 부동산 투자가 최근 지속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경기 업황도 지속 악화되면서 향후 투자 위축 장기화 우려
 -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64%를 차지하는 제조업과 부동산 투자도 최근 2년간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투자 경기 회복이 지연
 - 거시경제선행지수는 2013년 2/4분기부터 100p를 하회하고 있으며, 기업경기를 대표하는 선행지수인 기업경기지수도 지난 2011년 2/4분기부터 지속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

< 중국 제조업과 부동산업 투자 추이 >

(%)



자료 : CEIC.

주 : 2013년 말 기준, 제조업 및 부동산업 투자는 전체 고정자산투자 중 64%를 차지.

< 중국 기업경기지수 추이 >

(p)



자료 : CEIC.

주 : 중국기업경기지수란 생산, 투자 등을 대표하는 선행지수.

③ 외수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약화

○ 미국, EU 등 선진국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향후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대외경기 회복 지연으로 중국의 외수경기 회복 지연 예상

-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나, 지난해 12월 말 시작된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향후 불확실성 여전히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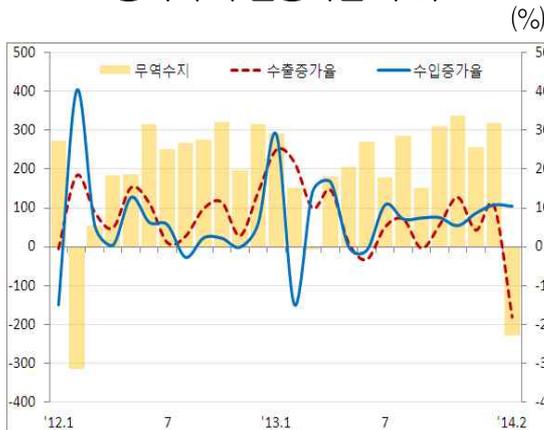
· IMF(2014.1)에 따르면, 2014년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경제는 각각 2.8%, 1.0%, 1.7%로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상향조정하며 경기 회복세를 예상

· 하지만, 지난해 12월말부터 시작된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향후 미국은 물론 기타 선진국 및 신흥국의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

- 이에 따라, 중국 외수경기는 선진국 경제 회복 지연, 계절적 요인 등으로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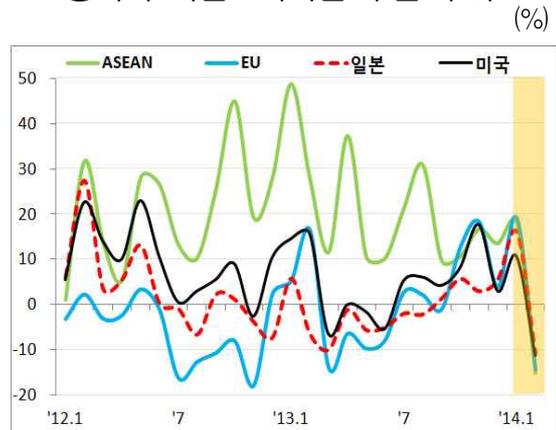
· 2014년 2월 들어 대내외 요인으로 미국, EU, 일본 등 중국의 주요수출 대상국 수출이 일제히 마이너스로 급락하며 중국의 무역수지도 급감

< 중국의 수출증가율 추이 >



자료 : 中國海關總署.

< 중국의 국별·지역별 수출 추이 >



자료 : 中國海關總署.

- 한편, 중국 제조업의 업황 회복세도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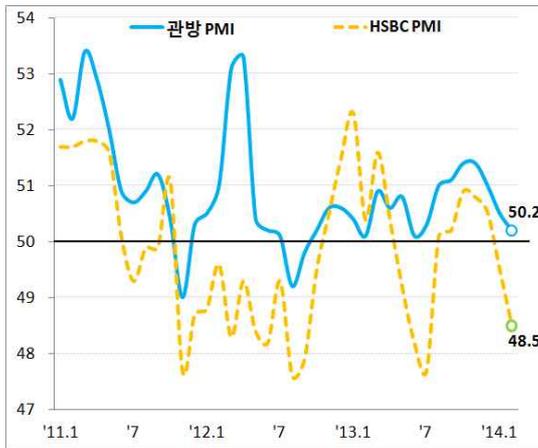
· 지난 2월 중국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국유 및 대기업 중심의 관방 PMI는 8개월 만에 최저치인 50.2p를 기록, 3개월 연속 하락

· 민간·중소형 제조기업 업황을 나타내는 HSBC PMI도 2월 현재 지난 1월 49.5p보다 1.0p 하락한 48.5p 기록, 2개월 연속 기준치 50p를 하회하는 등 중소제조업 경기 회복도 약화

- 특히, 관방 PMI의 생산, 주문, 수출지수¹⁾ 등 주요 세부지표들이 모두 하락세
 - 공급을 나타내는 생산지수와 수요를 나타내는 신규주문지수 및 신규수출주문지수 모두 하락세 지속

< 중국의 PMI 추이 >

(단위 : p)



< 부문별 관방 PMI 추이 >

(단위 : p)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Bloomberg.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주 : 관방 PMI는 3,000개 국유·대중형 기업 중심,
HSBC PMI는 350개 민간·중소형 기업 중심
으로 조사된 지표임.

2) 금융 부문

④ 금융경색 및 기업부실 확대 우려

- 최근 그림자 금융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정부의 금융 규제를 강화 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 사금융 금리는 고금리 양상이 지속되는 등 금융경색 확대에 따른 기업부실 확대가 우려

- 최근 5년간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약 9배 급증

- 중국 그림자금융 규모는 협의의 범위로 볼 때, 2013년 9월 현재, GDP의 약 5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²⁾

1) 제조업 관방 PMI는 생산지수, 재고지수, 신규주문지수, 신규수출주문지수, 생산활동예측지수 등 12개 지표로 구성. 생산활동예측지수는 2013년 1월부터 새로 추가된 지표임.

2) 중국 그림자 금융 규모 추정은 기관마다 차이를 보이나, 중국사회과학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2년 그림자 금융 규모는 GDP의 최대 40%, 최소 28%로 추정.

- 특히, 그림자 금융을 구성하는 은행의 부외거래와 신탁투자는 2013년 9월 현재 각각 9.9조 위안, 10.1조 위안으로 지난 5년간 약 10배, 8배로 급증

<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 추이 >

(조 위안, %)

구분	2008	2010	2012	2013.9
그림자 금융 (GDP 대비 비중)	2.2 (6.8)	5.5 (13.9)	14.7 (28.4)	20.0 (35.2)
은행의 부외거래	1.0	2.5	7.1	9.9
신탁투자	1.2	3.0	7.6	10.1

자료 : 中國銀行業監督管理委員會, 中國信託業協會.

- 주 1. 中國社會科學院(2013.10)이 제시한 최소규모 기준.
- 2. 최소규모 = WMP + 신탁업 투자 자산.
- 3. 2013년 GDP는 연간 기준.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2013년부터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방안을 발표

- 중국정부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상업은행의 자산관리상품 투자업무를 제약하기 시작
- 2014년 1, 2월에는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자 금융 규제안을 제시하는 등 강도 높은 금융 구조조정 단행

- 하지만 여전히 민간대출 금리는 높은 수준이 지속되는 등 민간의 금융경색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로 민간 부실기업 디폴트 확대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증대³⁾

-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시보금리(Shibor)⁴⁾는 지난해 신용경색 현상이 출현했던 2013년 6월 20일 13.44%로 급증하였으나, 2014년 3월 20일 현재 3.01%로 비교적 안정화
- 하지만, 중국내 민간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저장성 윈저우시(溫州市)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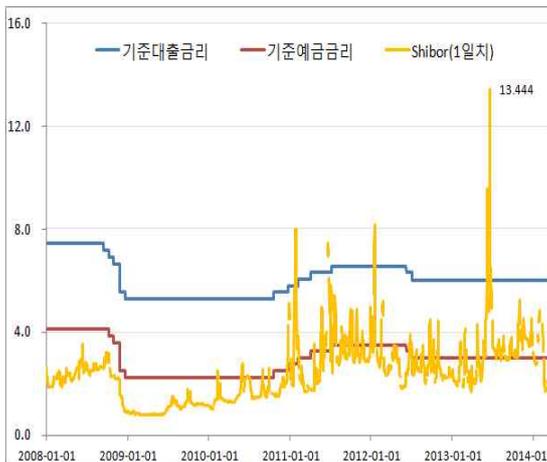
3) 지난 3월 13일 양회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중국총리는 그림자금융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이미 시작되고 있으며, 앞으로 부실기업의 디폴트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해결해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4) 상하이 은행간금리(Shanghai Interbank Offered Rate)란 2007년에 도입된 중국식 '리보금리(Libor)'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대표적인 금리.

사금융 금리는 지난 2008년 이후 약 20%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고리대 금리는 '14년 3월 현재, 27%에 이르는 등 금융경색 현상 지속

- 이에 따라,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로 인해 향후 민간 부실기업 도산 확산이 우려됨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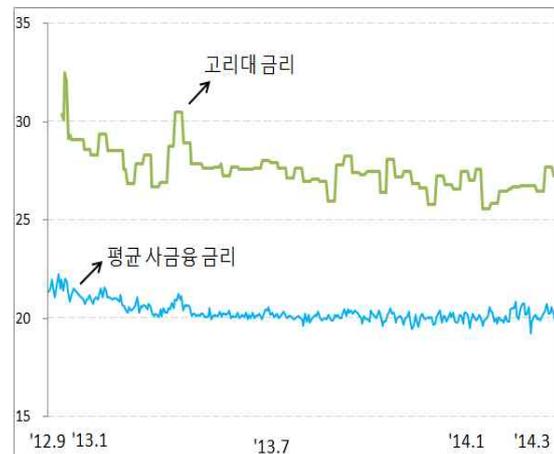
< 중국 정책금리와 시중금리 추이 > (%)



자료 : 中國人民銀行.

주 : 상하이 은행간금리(Shibor)란 2007년에 도입된 중국식 '리보금리(Libor)'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대표적인 금리.

< 중국 원조우 민간 대출 금리 추이 > (%)



자료 : CEIC.

주 : 원조우(溫洲) 민간대출 금리는 사금융기관의 적용금리를 의미.

⑤ 가계 부실화 가능성 확대 우려

-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 중시 하락 등 가계 자산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경색 등 금융 리스크 확대될 경우 신용 악화를 초래해 가계 부실화 확대가 증대
- 최근 주택가격 둔화, 주가 하락 지속 등 가계 자산 축소 가시화
 - 지난 2012년 8월부터 17개월간 상승세를 보이던 중국 100대 도시의 주택 평균가격 증가율이 최근 2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 부동산 판매면적 증가율은 '13년 초부터 감소세 지속
 - 상해종합지수도 2014년 3월 20일 현재 1,683p로 지난 2007.10.16일 역사상 최고점인 6,092p로 급등한 후 약 4,400p 이상 하락하는 등 가계 자산 하락세가 지속

5) 골드만삭스(2013)에 따르면, GDP 대비 중국기업 부채는 2014년 약 163%로 추정.

< 중국 주택가격 및 판매면적 증가율 추이 > (%)



자료 : 中國指數研究院.
 주 1. 주택가격은 일반형 주택과 서민형 주택을 포함 100대 도시의 평균주택가격 증가율 기준.
 2. 판매증가율은 월별 부동산판매면적(평방미터 기준) 증가율 기준.

< 중국 상해종합주가지수 추이 > (백만 위안) (p)



자료 : 中國上海證券交易所.

- 더욱이 최근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기한 내 상환을 미루는 미상환 규모도 동반 급증하고 있어 향후 가계 부실화 가능성 증대
 - 중국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2013년 현재 약 32조 위안으로 지난 2008년 약 4조 위안보다 8배 급증
 -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율도 2012년 약 37%로 지난 2008년 약 74%보다 감소하다 2013년 약 53%로 재차 급증
 - 하지만 신용카드 미상환 규모도 지난 2010년 22.6%에서 2013년 55.3%로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등 향후 신용 부실화 확대 우려

< 중국 신용카드 사용액 추이 > (십억 위안) (%)



자료 : 中國人民銀行.

< 중국 신용카드 미상환 추이 > (십억 위안) (%)



자료 : 中國人民銀行.
 주 : 미상환 금액은 만기 이후 6개월 이상 상환이 지체된 금액을 의미.

3) 평가

- 최근 중국경제는 소비시장 위축, 투자 감소, 대외경기 회복 지연뿐 아니라 신용리스크 확산과 가계 부실 가능성이 우려되는 등 경기부양 없이 올해 중국 경제 성장목표인 7.5%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소비시장 둔화, 투자 위축 장기화, 외수경기 회복 기대 약화 등 내외수 경기 둔화가 우려
 - 고용·임금 환경 악화 등 요인으로 소비 확대 동력이 약화되면서 소비시장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부동산, 제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지속 감소함에 따른 기업경기지수 하락 등 향후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투자 위축 장기화 우려 심화
 - 또, 미국, EU 등 선진국 경제의 회복 지연에 따른 제조업 업황의 회복 부진에 따른 외수경기 회복 기대감도 약화
-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 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기업 도산 및 가계부실화 확대가 우려됨
 - 그림자 금융 확산 규제에 따른 신용경색이 발생할 경우 기업 디폴트 확산 우려
 - 가계 자산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가계 신용 악화 확산에 따른 가계 부실화 가능성도 우려
- 이에 따라, 경기부양 등 중국 정부의 경기활성화 조치 없이는 올해 목표치 7.5%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 중국경제의 5대 하방 요인 관계도 >



3. 시사점

- 최근 중국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구조개혁 과정에서 경기 급랭에 대비한 상시 대응 방안 모색 필요
- 첫째, 對中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리스크 최소화와 해외 활로 개척 시급
 - 석유화학, IT 등 對中 수출 감소로 타격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한 해외진출 보힘과 무역 금융 대출제도 확대 고려
 - 주요 수출 품목의 對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등 다양한 수출 활로 개척 필요
- 둘째, 중국의 금융發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전판 강화
 -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 등 중국의 금융 구조조정에서 출현할 수 있는 돌발 리스크로 나타날 수 있는 국내 투자된 중국자금의 대규모 유출 등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외환보유고 등 외환 시장의 안전판을 더욱 강화하고 일시적 신용경색 사태에 대비해 시장의 유동성 공급 상황 상시 모니터링
- 셋째, 기업들은 중국 경기 급감에 대비한 컨틴전시 프로그램(비상경영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중국경제가 급랭할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지역별 맞춤형 전략 상품 개발, 현금경영강화 등의 위기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넷째, 금융경색에 대비해 중국 현지 국내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책도 사전적으로 검토
 - 중국 경기가 급랭될 경우, 중국 현지 국내기업의 자금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돌발 사태에 대비해 사전적 지원책 검토 및 마련 필요

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 한재진 (02-2072-6225, hzz72@hri.co.kr)

연구원 천용찬 (2072-6274, junius73@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1.1	2.5	4.1	3.2	2.8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0.3	1.0
일본	2.0	3.7	-1.7	-3.1	-0.2	1.7	4.8	3.9	1.1	1.0	1.7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5

주 1) 2013년,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1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3월 13일	3월 20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64	2.77	0.13%p
	엔/달러	85.86	98.51	105.04	102.74	102.41	-0.33¥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3904	1.3823	-0.0081\$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6,109	16,331	222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4,816	14,224	-592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87	2.87	0.00%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069.0	1,076.2	7.2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1,934.4	1,919.5	-14.9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3월 13일	3월 20일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98.23	99.32	1.09\$
	Dubai	107.99	100.38	107.88	104.14	103.47	-0.67\$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303.32	300.17	-3.15\$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7	2.6	1.5	2.0	1.9	3.6	2.8	3.8
	민간소비 (%)	2.4	1.2	2.2	1.7	1.6	2.1	1.9	2.7
	건설투자 (%)	-4.7	-1.9	-2.4	-2.2	5.2	8.3	6.9	2.5
	설비투자 (%)	3.6	2.3	-6.1	-1.9	-8.2	5.7	-1.5	6.7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261	163	317	481	298	410	707	4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41	441	370
	수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32	5,596	6,067
	(증가율, %)	19.0	0.5	-3.1	-1.3	0.5	3.8	2.1	8.4
	수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5	2,591	5,156	5,697
	(증가율, %)	23.3	2.3	-4.0	-0.9	-2.9	1.4	-0.8	10.5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7	2.2	1.4	1.2	1.3	2.4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2.9	3.1	3.1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4	1,086	1,095	1,07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